



순창 풍산면 두지마을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성공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순창 농촌생활개선 '순조'

두지마을 태양광설치 마무리·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 등 58% 진척

순창 풍산면 두지마을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성공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군은 최근 두지마을 공동이용시설인 복합문화교류센터 태양광설치 공사를 마무리 짓고 슬레이트 처리 35가구 지붕개량 25가구 빈집정비 11가구가 완료돼 전체 공정을 58%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리더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민원을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두지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8.4억 대비 0.9억 국비 2억 등 총 사업비 11

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 주택정비, 경관정비,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등 총 6개 분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7월부터는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 공동생활회 정비, 저지대 생활 오수처리시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여건이 열악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온 두지마을 주민들

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 된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철호 추진위원장은 사업이 선정된 이후 15차례 추진위원, 마을주민, 시공업체, 발주기관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국 55개 선정지구 중 가장 으뜸가는 새마을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두지마을을 주택 건축 경과연수가 30년 이상 가구 74.2% 슬레이트 지붕 비율이 전체가 83.3%를 차지하는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위생이 취약한 마을로 평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마을세무사 제도 적극 시행 '호응'

경제적 이유 등 세무 상담 받기 어려운 주민들 위해 국세·지방세 무료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의 세금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군청 민원상담실에서 현장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

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창군 마을세무사로는 김성수 세무사가 군민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동참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561-2535)·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현장 세무 상담을 받은 고창읍 한 주민은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

워 세무 상담을 받던 편이 받기 어려웠던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양도세관련 국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는 7월20일에 실시되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고창군청 민원상담실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56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위한 주민 100인 토론회

과거·현재 살펴보고, 분야별 다양한 문제점·해결방안 등 논의

남원시는 지난 6월 10일 운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 100인 토론회'를 열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주민 토론회에서는 이형우 농정과장, 전북대학교 순재연구소(PM단장), 윤지홍 추진위원장 및 지역주민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운봉읍의 과거·현재를 살펴보고 운봉읍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다양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 공모사업' 선도시구로 지정된 운봉읍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 56억원, 지방비 24억원 등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경제·문화·복지·관광 분야 네트워크 구축으로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대대적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운봉읍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운봉 문화플랫폼센터'와 '전통시장 재 정비'로 운봉읍 근지역인 인월면, 이영면, 산내면 등



3개면 공동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마을과 읍내 간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정류장 정비 등의 대대적인 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운봉읍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거점 확대를 위한 중심거리 정비를 통해 상가 간판 및 벽면 정비, 가로경관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4월부터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과 연내 전통시장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등의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형우 농정과장은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산누리, 공간권역(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전촌마을(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지리산 웰스&뷰티타운 조성사업(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등과 연계해 문화·복지·경제·관광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남원시 동부권 전체의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농촌건강장수마을 호평

고령자 건강관리·사회생활 기회·소일거리 제공

순창군이 농촌 고령자의 삶을 질을 높이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미소가 번지고 있다.

군은 최근 인계면 세동마을과 적성면 평남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마을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일거리를 발굴해 소득과 연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인계면 세동마을과 적성면 평남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각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계면 세동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에서 땀마루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급해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다. 또 사고의 위험도 많았다.

군은 이 구간에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적성면 평남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외벽에 벽화를 그려 마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미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노력했다.

또 농촌고령자들이 글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니어 글쓰기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오물조물 점토이야기 등 농촌고령자의 근력강화 및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미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설명회

남원시는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35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정책자금 사용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직무교육을 6월 16일 시청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지난 1월부터 영농계획 수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영농기록, 농업관련 교육이수 실적, 재정상태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남원시 후계농업인 심사위원회회의를 거쳐 전북도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엄격한 평가에 따라 3월초 최종 선정되었다.

직무교육은 사업 추진요령과 융자금 대출 절차 등의 교육은 물론 남원시

농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앞으로도 각종 경영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남원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인재 양성에가는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8세이상 50세미만의 농업을 대상으로 선정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협에서 최대 2억원을 한도로 농업 융자금을 연리 2%의 저리로 대출해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보건소, 뇌운동 '인지훈련메뉴얼' 마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뇌운동 프로그램 '인지훈련메뉴얼'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인지기능과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 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뇌신경을 활성화 시켜 호흡조절로 몸을 안정화 시킨다.

인지훈련은 감각, 지각, 사고, 인식, 기억, 일반화 및 추상에 따른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적능력과 특정한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맞춰 크게 2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으로 긴장 이완은 물론 스트레스와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신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치매예방운동법을 통해 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뇌신경을 활성화 시켜 호흡조절로 몸을 안정화 시킨다.

인지훈련은 감각, 지각, 사고, 인식, 기억, 일반화 및 추상에 따른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적능력과 특정한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바이오품, 기술개발사업 선정

제)베리&바이오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약 1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연구소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창군 소재 2개 중소기업인 (농)(주)선운산복분자주흥진(대표 임종훈), (농)(유)한국로하스식품(대표 신민규)과 함께 2건의 세부사업을 1년간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주)선운산복분자주흥진은 '복분자 주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 (농)(유)한국로하스식품은 '천연 원료를 첨가하여 기호성 및 편의성이 증진된 치주질환예방 죽염 가공제품 개발'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관기관인 연구소에서는 제품개발·가능성검증·제품분석 등을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시제품 생산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통합마케팅 워크숍

임실군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관내 농협조합장, 생산농가,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통합마케팅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1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워크숍은 경북 상주시 소재 성주봉 자연휴양림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 주제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경북지역 산지유통센터를 견학하고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우수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며, 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한 산지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드림스타트아동 치과치료

순창군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치아관리 및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아동 8명에게 구강검진 및 치과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있는 제일치과외원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며 치과치료비 중 30%를 지원받아 취약아동에게 치과질환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드림스타트팀은 사전에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아동의 건강한 치아 관리는 물론 구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대상아동은 한 학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치치료를 제때해주지 못해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할 마음이었다"며, "치료 후 가정에서도 치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주민행복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 발굴해 신체발달과 밝은미래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